

■ 남도갯길 '세계 걷기 명소' 만들겠다더니... 왜 이지경인가

'걷기 열풍'에 즉흥 추진

돈 쓸곳 많은 전남도 2년간 예산 한푼 안 쥐

전남도가 '세계적 걷기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지난해 2년 동안 추진 해온 '남도갯길 6000리' 조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관심 때문이다.

◇말뿐인 600억 투입 계획 = 전남도는 지난 2009년 6월 '남도갯길 6000리 조성' 사업을 내놓았다. 영광군 홍농읍~광양시 진월면에 이르는 16개 시·군 2500km를 국내 '걷기 전용 1호선'으로 만들겠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었다. 예초 '남도 바닷길 3000리'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1200km에서 2500km로 구간이 늘어났면서 바뀌었다.

당시만 해도 2017년까지 10km당 2.5억 수준으로 전체 600억원을 투입해 호남의 정서가 담긴 특색 있는 테마를 설정해 역사·문화·생태 탐방 걷기 전용길을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그뿐이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제대로 길을 만든 구간은 찾아보

기 힘들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발표한 2009년 첫 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324km의 돌과 잡초 제거 작업을 벌인 게 고작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담당 부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8억원의 사업비를 올렸지만 전남도 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16개 지역 1600km 구간 정비에 예산이 절실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이색적 볼거리와 테마를 담은 길 선정을 위해 올렸던 '갯길 탐방 행사비' 1000만원조차 일부 투입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니 시·군도 예산 반영을 미뤘다. 시·군은 그나마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구간에만 일부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도 비슷하다. 16개 시·군 200개소에 한 개씩 '남도갯길 6000리'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

해 올린 2억원의 예산도 전남도 자체 예산 심의에서 모두 잘려나갔다. 일각에서 "걷기 열풍이 거세지자 추진 의지도 없이 따라하기식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주민조차 모르고 걷기도 위험 = 전남도가 우선 순위에서 밀어놓고 일선 시·군도 무관심한 채 방치하면서 '남도갯길'은 탁상용 행정 용어에 머물러 있다.

영광·무안지역 바다에 접한 도보길의 경우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공무원조차 '남도갯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천일염길 등은 편의시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충분한 검토와 답사 없이 건설성으로 도보길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따라하듯 말만 앞세우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남도갯길 6000리 조성 계획도



◇ 남도갯길 6000리

"우린 한뿌리... 원자력의학원 공동 유치"

■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 월 남겼다

광주상수원 동북면 일대 정비 등 상생협력 평동 軍 훈련장 조성 이전은 여전히 이견

22일 열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는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남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열리지 않던 광역행정협의회가 올해만 두차례나 열린데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로 한때 느슨해졌던 광주·전남이 한 뿌리임을 인식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재차 약속한 만큼 광주·전남 상생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전남 경제가 살아야 광주 경기도 산다" =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번 논의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행복한 공동체 전남을 건설하는데 상생의 씨앗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한뿌리인 광주·전남이 2할 자치의 한계를 넘어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한 몸으로, 전남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광주 경기도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광주 발전이 더디면 전남도 낙후의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예이다.

이번 합의안도 시·도가 광주·전남 상생 발전 방안을 도출해내면서 만들어졌다.

동북면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광주시는 그동안 '택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관련법과 시행령 등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날 동북면 건설로 화순군 이서·북·동북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만큼 이 일대 189km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비 사업에 적극 협의를 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공동 유치도 마찬가지다. 양 시·도는 지금껏 독자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왔다. 전북, 광주 등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마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경우 호남권 유치가 약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도 컸다. 따라서 이번 공동 유치 합의는 시·도간 갈등을 사전에 해



2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동군사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 장성·영광군이 반발하고 나서자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결하고 지역민들의 힘을 집결시켜 원자력의학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전 협조와 조율 아쉬워" = 이번 광역행정협의회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평동군 훈련장 이전,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을 둘러싸고 장성, 영광 등 일선 시·군과 갈등을 빚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열린다는 점에서 평동군 훈련장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양 시·군의 분명한 입장만 확인했다. 광주시가 평동군 훈련장의 조성 이전을

위한 MOU체결 계획을 발표할 뒤 나온 반응과 전혀 달랐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급한 현안 해결을 내세워 만나기에만 급급,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나쁜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군 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평동군 훈련장(79만평)을 장성군 황룡면 제병협동훈련장으로 옮기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영광군에도 대마면 야산을 매입, 동북면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니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에 지역 사정을 고려하거나 조율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전대란때 예비전력 제로 100분 발생"

국회 김영환 위원장 주장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때 전력 수요량이 실제 발전공급량을 넘어, 사실상 예비력이 완전히 바닥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22일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때 예비전력이 '(제로)'인 상태가 총 100분 동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예비전력 0인 주파수 59.8Hz 미만 상황이 모두 20분 있었다"며 "이를 합치면 100분, 정확히 1시간39분58초였다"며 "예비전력 제로 상태가 46분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전사태 당시)

전기가 남아있었다면 주파수가 떨어질 리가 없다"며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46분씩 떨어질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오후 4시11분 56초엔 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며 "이 시각에 양수발전기 작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상 범위의 주파수는 59.8~60.2Hz인데 주파수가 59.0Hz 아래로 내려가면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 그는 "주파수는 실제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앞으로) 모든 매뉴얼과 보고체계, 상황 판단은 모두 주파수에 의거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관람 '권력게이트' 시작됐군

전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2012년 말 개원예정인 전남대학교병원 제3분원

(가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내 33,000㎡ 부지에 총사업비 61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1,789㎡에 220여 병상 규모로 건립, 2012년 말 개원 예정

공모주제

- 전남대학교병원 제3분원으로 어울리는 이름
- 종합병원으로서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병원의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
- 지역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지향적 병원을 표출할 수 있는 이름
- 발음하거나 기억하기에 용이한 이름

접수기간 및 일정

2011년 9월 26일(월)~2011년 10월 31일(월), 18:00 까지

당선자발표

2011년 11월 7일(월)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cnuh.com) 및 개별 통보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1인 1점 응모 (단, 중복 응모 가능)

심사기준

응모주제와의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발음 및 기억용이성

응모방법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cnuh.com) 명칭 공모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한 응모

응모요령

- 응모 페이지에서 응모자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입력
- 응모 명칭 국문, 영문 기입
- 명칭 제안 설명(200자 이내)

기타사항

- 수상자에 대한 관권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전남대학교병원에 귀속됩니다.
- 수상작은 일부 수정·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이어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 및 표절의혹이 있는 작품은 심사 시 제외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에게는 시상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이 기존에 미달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 대 상(1명): 동남아 해외여행권(5일) 2배(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
- 우수상(2명): 전남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 1배
- 아차상(5명): 10만원 문화상품권(대상과 동일 명칭, 접수선착순)
- *시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공모 이벤트 홈페이지 응모계시관 및 전남대학교병원 홍보실 (062-220-5092)